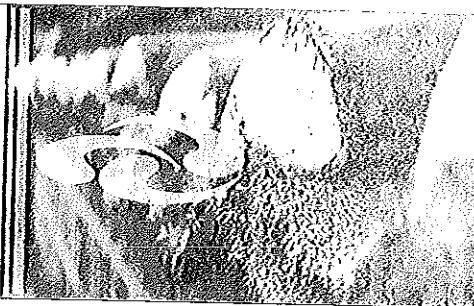


# 초청특강



담화 문맥에서 지칭어와 호칭어의 사용

[ Hae-Young Kim\_Duke University ]

## 담화 문맥에서 지칭어와 호칭어의 사용

Hae-Young Kim  
| Duke University |

### 1. 들어가는 말

호칭어는 상대를 불러 주의를 끄는 명백한 기능 뿐 아니라 상대와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며, 때로는 의례적이지 않은 표현의 선택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이나 국면으로 변화시키는 기능 까지도 수행한다 (이윤진 2006, 박정운 2005). 즉 호칭어의 선택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활기시키거나 정립하고, 청자는 암묵적으로, 드물게는 드러내놓고, 그 선택이 전제하는 관계를 인정하거나 거부한다.

대인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중차대한 역할을 차지하는 호칭어 사용은 한국어 교육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 발전의 관점에서 화두가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 (이의 섭1994에 따르면 14개의 등급) 가 극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어 호칭어 체계에 대한 기술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가족형, 이름형, 대명사형, 직함형, 일반명사형, 자녀 이름 매개형, 주의환기형 등 적개는 일곱, 많게는 아홉개로의 유형으로 대별될 만큼 (강소산·전은주, 2013) 실로 다채롭고 복잡하다.

호칭어 교수의 현황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행된 대학과 정부 기관 교재 모두 한국어 호칭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효봉 2010, 강소산·전은주, 2013). 모어화자의 실제 사용양태와 달리 이름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비교적 다양하게 소개된 가족형은 혈연관계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의사 친족 호칭의 예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직함형도 종류가 극히 적으며 절대 다수가 '선생님'이다. 학습자 언어연구는 학습자들이 이름형 호칭어를 많이 쓰고 (배지영 2005; 강소산·전은주 2013에 인용), 가족형 호칭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서진숙 2009).

호칭어 못지 않게 지칭어도 중요 교수요목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발전에 담화 능력 (discourse competence)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이에 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다수의 문장을 사용하고 이어가는 능력이다. 문장 사이의 응결성,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이 담보되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서사나 묘사에서 지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응결성이 혼자히 떨어져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저해한다. 특히 서사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 인물을 서로 혼동되지 않게 지칭하

려면 한국어의 호칭체계가 제공하는 각종 표현을 적절히 선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발표는 한국어 호칭·지칭어 교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습자 언어자료와 실질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어와 구어 서사 담화에서 학습자의 지칭어 사용 양태를 살펴 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학습자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교수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가능한 폭넓게 호칭어·지칭어 사용에 접하고, 그 선택을 결정짓는 담화적, 사회관계적 요인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소통목표에 부합하는 호칭어·지칭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2. 서사텍스트에서 학습자의 지칭어 사용 양상

### 2.1. 이름형과 가족형

예문 1과 2는 서편제의 주요 등장 인물, 줄거리, 주제를 토론하는 학습자 텍스트이다. 예문 1에는 이름형 지칭 만이 사용된데 반해 예문 2는 이름형과 가족형 지칭어를 병용한다. 예문 1의 저자는 영어 모어화자, 예문 2의 저자는 한국어 계승어 화자로 예문 2의 저자가 유창성과 구문의 복합성 면에서 한국어에 조금 더 능숙한 학습자임이 글에서 드러난다. 예문 2가 예문 1보다 잘 읽히는 것은 등장인물 소개에 가족형 지칭을 병용하여 독자가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줄거리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문 1의 저자는 이름형 지칭 사용으로 등장인물들을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데에 그치고,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미처 하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호칭·지칭체계에 익숙치 않은 학습자들이 이름형 호칭어를 선호한다는 연구 보고 (배지영, 2005; 강소산·전은주 2013에 인용)에서도 드러난 대로, 담화 문맥에서 가족형 호칭·지칭어를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노출과 학습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예문 1: 영어모어 화자 학습자 JD의 작문

... 판소리 할 때 고수 역할은 얼마나 중하고 어렵습니까? 맞는 장단에 북치기도 힘들고 추임새도 집중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화 초기에는 통호가 이런 문제로 당합니다. 장단을 지키지 못하고 추임새하기도 잊습니다.

판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배우는 전통적인 기술입니다.

유봉은 송화랑 통호에게 판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때 직접 북치고 소리 시킵니다.

유봉도 소리 더 잘 하고 싶을 때 자기 친구인 전문가 찾아서 배웁니다. ...

#### 예문 2: 계승어 화자 학습자 NA의 작문

서편제에서 등장하는 청년 통호는 이복누나인 송화와 소꿉친구인 아버지 밑에서 판소리를 배웁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가 이 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슬프게 느껴진 장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인공들은 피와 땀을 흘려서 연습한

전통 음악은 술 자리나 저자 거리에서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송화가 술집에서 연주를 했을 때는, 양반들에게 기생 취급을 당했습니다…

## 2.2. 일반명사형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지칭어 사용의 양태를 살펴 보기 위해서 영어모어화자, 계승어화자, 한국어 모어화자 세 집단의 구어서사 담화를 비교 분석한 Kim (2012)의 자료 일부를 재분석했다. 표1에 나타나듯이 지칭어의 사용 범위가 세 집단 사이에 뚜렷하게 대조된다. 한국어 사용 경험이 적을수록 지칭어가 다양하지 않고, 등장 인물들 사이의 구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어 모어 화자들은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유명배우의 이름만을 사용했고, 여자 주인공과 단역 인물의 구별 없이 동일한 일반 명사 ('여자')로 지칭했다. 반면 계승어 화자들은 남자 주인공 지칭으로 이름 뿐 아니라 일반 명사 ('남자'), 대명사 ('개', '애')도 사용했고, 여자 주인공과 조역을 각각 명사형 ('여자')과 가족형 ('아줌마')을 사용해 구별했다. 모국어화자의 두 여성 인물 구별은 이외에 나이차를 표시하는 일반명사형 ('여자애'-'여자')도 이용한다. 서사담화에서 모어화자에 비해 학습자들이 얼마나 더 제한된 지칭어를 사용하는지는 Eun and Lee (2012)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표 1> 구어서사담화에 사용된 지칭어 (Kim, 2012 자료 재정리)

	영어모어화자(3명)	계승어화자(3명)	한국어모어화자(3명)
여자	여자 orphan여자 orphan 그_여자 그_아이 여자 그_여자 이_여자 애	여자 다른_여자 어떤_여자 그_다른_여자 아줌마 어느_아줌마 어떤_다른_아줌마 그_다른_근처에_있는_아줌 마 증인 고아된_그_여자 그_고아 그_여자 이_여자 저_여자 그_여자애 이_여자애 저_여자애 개 애 재	여자 다른_여자 어떤_여자 그_다른_여자 아줌마 어느_아줌마 어떤_다른_아줌마 그_다른_근처에_있는_아줌 마 증인 고아된_그_여자 그_고아 그_여자 이_여자 저_여자 그_여자애 이_여자애 저_여자애 개 애 재
남자	남자 그_찰리채플린 이_남자 개 애	남자 그_찰리채플린 이_남자 개 애	남자 찰리채플린 채플린 이_찰리채플린 저_사람 이_사람 이_남자

### 2.3. 대명사와 지시어: 담화 응결성 및 화자의 태도와 시각

세 집단의 지칭어 표현을 비교하는 위의 자료에서 또 한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명사와 지시어의 사용정도이다. 한국어모어화자들이나 계승어화자들과 달리 한국어 경험이 제한된 영어모어화자들은 대명사 '개'나 '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모어화자들과 계승어 화자 한 명이 '이'와 '그'를 활용한 반면, 영어모어화자들은 '그' 만을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아래 예문 3의 한국어 모어화자가 사용한 지시사 '이'와 '그'의 용례를 살펴보면 지시사의 기능이 (i) 현장 지시(deixis) (ii) 문맥지시 (anaphoric reference)와 (iii) 화자의 정서적 태도 (affective stance)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현장지시의 기능은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할 때 (h, o, q) 사용되었고, 문맥 지시의 기능은 두 주인공을 이야기에 처음 도입할 때 '그' (a, b) 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이전 담화에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지칭대상임을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 이 모어화자는 여자 주인공 지칭에 '그'와 '개'를 계속 사용하다가 줄거리에 중요한 발전이 있는 시점에서 '이' (f)로 전환한다. 상황전체를 둘거리에서 이야기하던 화자의 시점이 주인공에게 근접해 간 것이다. 화자는 이렇게 여자 주인공 지칭에 '이'를 사용하다가, 남자 주인공의 등장을 묘사하며 '이 채플린' (k) 이라고 지칭, 시점을 남자 주인공쪽으로 옮겨간다. 이후부터 여자 주인공 지칭에는 지시사 '그' (r)가 사용된다. 이렇게 지시사가 지칭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나 정서적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면대화에서 '이'와 '저'의 대조적 사용을 분석한 Oh (2010)의 연구에서도 예시된 바 있다.

예문 3 : 한국어 모어화자 MS 의 구어서사 (Kim, 2012 자료 제인용)

- (a) 그 찰리 채플린이 다시 감옥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
- (b) 그 아까 고아된 그 여자 있죠,
- (c) 개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 (d) 그래서 개가 이렇게 그 여자애가 가다가, 뺑가게를 지나는데,
- (e) 그 빵 그 금방 구운 빵차가 온거예요 그 빵가게 빵을 배달하려,
- (f) 그래서 주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여자애가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 (g) 근데 지나던 여자가 그걸 보구,
- (h) 그 주인한테 제가 이제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해줬다구요.
- (i) 궁까 주인이 막 쫓아가는데 이/ 여자가 도망가다가 찰리 채플린하고 부딪쳐서 넘어졌어요.
- (j) 그래서 잡았지.
- (k) 궁까 지금 이 이 채플린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때니까 그걸 딱 보구서
- (l) 아 내가 그랬다구 이/ 여자가 그런게 아니라 자기가 그랬어요 경찰이 왔을 때.
- (m) 그래서 경찰이 개를 아니 찰리 채플린을 데리고 가는데,
- (n) 막 가는데 그 아까 목격했던 그 아줌마가 와가지구는
- (o) 저 사람이 아니구 저 여자가 훔쳤다구,
- (p) 그 주인한테 말해준 거예요.
- (q) 그러니까 주인이 막 쫓아가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저 여자애가 훔쳤다,
- (r) 그래서 경찰이 찰리 채플린을 버려두고 그 여자애를 쫓아갔어요.

한국어모어화자와 달리 영어모어화자들과 계승어 화자·두명의 서사텍스트에는 지시사 '그'가 문맥지시의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이', '그', '저'의 대조에 의한 현장지시나 '이'를 이용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예문 4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결과 이 화자들의 서사 담화는 단조롭고 평면적으로 들린다.

예문 4: 영어모어화자 HN의 구어 서사 (Kim, 2012 미인용 자료)

그 찰리 채플린이가 어 감옥에 다시 가고 싶었고 그 여자가 아버지가 어 어 돌아갔고 돈이 없 없었 ...  
없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아 그 여자가 빵집에 가고 ... 아 주인이 ..... 빵집에 가고 그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빵 다음 여자가 봤고 그 빵집 주인에게 그 여자가 ... 빵을 어 훔쳤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경찰을 ... 그거서 그 그것을 아 말했고 ...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 도망 갔을 때 찰리 채플린이랑 ... 뒤 뒤엉 뒤엉했어요?

[....]

예 부딪쳤어요.

그래서 ..... like 넘어졌어요.

그 일어났을 때 찰리 채플린가 어 빵을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 경찰이 찰리 채플린 ... 찰리 채플린이 훔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빵집 주인이랑 그 다른 여자가 그 찰리 채플린 아니라 그 여자 ... 가 빵을 ... 훔쳤다고 어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 찰리채플린이 자유 어 자유로와졌 졌는데 ...

### 3. 효과적 호칭어·지칭어 사용을 위한 교수방안

학습자가 지칭·호칭어 사용의 취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교수 방안의 개발에 몇 가지 고려사항을 짚고 넘어가자. 첫째는 학습자의 한정된 언어지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일반 명사, 대명사, 지시사 등의 어휘나 형태소를 습득·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호칭어 사용의 어려움의 근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광범하게 사용되는 가족형, 직함형 호칭어의 종류와 그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째는 호칭어 선택에 있어 학습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가족형 지칭어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북함 (서진숙 2009), 심지어 거부감 (박미영 2013)을 나타낸 연구 보고가 있었다. 호칭어 선택이 상대화의 관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언어, 문화, 사회 정체성까지 관련된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민감한 결정임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호칭·지칭어 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재의 대화문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와 지칭되는 대상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호칭어, 지칭어의 양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 으며, (강소산·전은주 2013), “동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호칭어는 단순히 하나의 문장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되는 것보다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포함한 담화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해야 한다 (제효봉 2010)” 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개선안이 기존교재의 부분적인 수정에 그치거나 추상적인 총론에 머물지 않도록 더 적극적

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를 통해 시도하는 방안은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지칭·호칭어의 사용에 학습자를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어 지칭·호칭 표현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 (즉 위계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의 각종 변인들)를 발견하도록 지도하려는 것이다. 호칭·지칭어의 선택은 모이화자들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간, 집단간의 변이가 끊임없이 통시적 변화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학습자들이 호칭·지칭어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호칭·지칭어의 목록을 가지고 모이화자들의 선호도를 인지하는 바탕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3.1. 설화 읽고 토론하기: 가족형, 일반 명사형, 직함형 호칭

한국어에서 선호되는 가족형이나 일반 명사형 호칭과 지칭은 설화와 같은 내러티브에 눈에 띄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보면 남자 주인공은 이름 없이 ‘나무꾼’으로 지칭되고 여자 주인공도 ‘선녀’ 또는 남자 주인공의 관점에서 ‘아내’로만 지칭된다. 그들 입자 마음대로 라는 짧은 설화에서도 두 주인공은 ‘부자 영감’과 ‘총각’으로 늘 지칭된다. 설화에서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성과 직함을 쓰는 직함형 지칭어가 종종 쓰인다. 예를 들어 고려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대신’, 중국에서 온 ‘사신’, 그리고 박대신의 ‘어머니’이다. 설화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인공이든 주변인물이든 ‘원님’, ‘훈장님’, ‘영감’, ‘박영감’, ‘박첨지’, ‘농부’, ‘머슴’, ‘나그네’, ‘젊은이’ 등 이름형은 없고 일반명사형이나 직함형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설화는 ‘어머니’, ‘아버지’, ‘아내’,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 등 예외없이 가족형 지칭과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전통설화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나 가족 친족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설화를 읽고 토론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는 한국어의 핵심적인 호칭체계에 접하고 익숙해진다. 단순 노출에 의한 학습에서 멈추지 않고 이름형, 일방명사형 호칭 사용에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주인공을 가리키는 단어나 표현을 모두 찾아보게 한 후, 대체 가능한 다른 지칭어가 있을지, 다른 지칭어 사용의 효과는 어떤 것일지 등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 3.2. 다매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기: 지시어, 대명사형, 일반명사형 지칭어

그림이나 영상 등 다매체 자료는 호칭어·지칭어 수업 활동, 교수 방법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보고이다. 다양한 호칭·지칭어를 사용할 상황을 담고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의사 소통이 필수적인 과제를 주면 학생들은 내용 전달을 위해 호칭·지칭어를 의식적으로 찾아 쓰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의 간극 (information gap)을 설정하면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확보된다. 덧붙여 지칭어 학습의 효과증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칭어 선택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국어 화자가 같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준거를 제시하여 모이화자와 학습자 자신의 지칭어 사용을 비교하게 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자료의 빌글과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예시로 2009년 단편 만화 영화 부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Oktapodi(2007)을 이용한 교수활동을 소개하겠다. 2분 26초 길이의 이 만화영화는 암수 두 마리 낙지와 그 중 한 마리를 구입해 가는 남자를 중심으로 숨쉴 틈 없이 벌어지는 역동적인 드라마이다. 영화 시작 후 1분 10초면 등장 인물, 상황이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건이 흥미진진한 지점에 이른다. 이 전반부를 학급의 반만 보고, 보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전반부를 본 학생들이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2명으로 또는 4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후반부는 학생들의 역할을 뒤바꾸어 같은 활동을 되풀이한다. 이제는 전반부 얘기만 들었던 학생들이 후반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전반부만 본 학생들은 청자의 입장에서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들을 것이다.

후속활동으로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지칭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한다. 줄거리 이해를 확인하며 등장인물에 대한 지칭어를 사용해야 하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팔려 간 낙지가 어떻게 차 속의 아이스박스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답: 팔려간 암낙지를 구하러 따라간 숫낙지가 차창에 매달려 빨 하나를 안으로 뻗어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어준다), 낙지를 사간 남자가 운전하던 차가 어떻게 갑자기 서게 되었는가 (아이스 박스에서 나온 암낙지가 브레이크를 잡아 당긴다), 낙지 두마리는 어떻게 전기줄에 매달리게 되었는가 (차가 언덕을 굴러 바다로 떨어지며 남자가 손에 잡고 있다가 놓쳐 공중에 던져진 두 낙지가 전기줄에 걸린다), 전기줄에 동동 매달린 낙지들은 어떻게 되나 (갈매기 한마리가 날아와 숫낙지를 잡아채어 간다), 결말 장면은 첫 장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처음과 반대로 이번에는 암낙지가 숫낙지를 구하러 간다) 등을 물어 볼 수 있다. 이에 뒤이어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서술과 이해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 얘기해 본다.

마지막으로 모어화자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음성파일로 준비해서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세 등장인물 (암낙지, 숫낙지, 낙지를 사 가는 남자)을 지칭하는 표현을 모두 받아 적게 한다. 모어화자가 사용한 지칭어는 더욱 다양할 것이고, 이야기의 생동감을 높이고 등장인물과의 공감을 드러내는 지칭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낙지가 칼로 토막쳐 지는 것을 상상하며 안간힘을 다해 구하려고 하는 수낙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화자의 공감적 태도를 보이는 지시어 '이'를 사용해 '이 숫낙지'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지칭 대상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야 할 때 의인화된 대명사 '애'와 같은 지칭어를 쓸 수 있다. 모어화자가 선택한 지칭어의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지칭어 사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교수활동은 다양한 등장인물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서사담화를 주고 뱉는 과제를 줌으로써 의사소통상황에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1) 학급을 둘로 나누어 한쪽만 영화의 전반부를 보고 다른 쪽에게 이야기 해 준다. 2) 후반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역할을 뒤바꾼다. 3) 줄거리 이해를 확인하고 화자의 입장과 청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려웠던 점을 점검해 본다. 4) 모어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고 지칭어에 초점을 맞춰 토론한다.

### 3.3. 호칭어·지칭어 사용 분석 프로젝트 : 직함형, 이름형, 가족형

여러 인물의 상호관계를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며 동시에 그 관계의 변화까지 담아내는 TV 드라마나 영화는 호칭·지칭어 교수자료로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자료로 호칭·지칭어의 사용을 예시하는 장면들을 발췌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를 더 진전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이는 호칭·지칭어를 찾아내 사용자와 상황을 살펴보고 호칭·지칭어의 선택과 사용체계의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교수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지칭어 분석을 과제로 주기에 앞서 준비과정과 일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 지침은 한국어 호칭·지칭어 선택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학문적 논의를 간략히 살펴 보면, 세계 모든 언어의 경어법과 공손함을 분석하는 틀로 권세 (power)와 유대 (solidarity)라는 상하 위계 관계의 축과 수평적 친소감의 축이 제시된 이후 (Brown and Gilman 1960), 여러 언어의 연구에 적용되면서 논쟁이 제기되었다. 각 언어나 그 하부 언어 공동체에서 종적 관계를 형성하는 권세에 작용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횡적 관계를 구성하는 친근감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 두 축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고찰이 있었다 (Lee and Cho 2013 참조). 이익섭 (1994)은 한국어에서는 서열과 친분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 둘 중 서열이 우선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절대적 나이와 격식이 추가적으로 작용한다고 관찰했다. Lee and Cho (2013)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극도로 다양한 호칭어 선택의 설명에 권세와 유대라는 두 축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적인 친밀감 (intimacy)이라는 세번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적 논의의 성과를 수렴하고, 취사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용어로 학습자용 호칭·지칭어 분석 지침을 마련했다. 권세 또는 서열은 한국어에서 직장의 직급과 직위로, 학교의 선후배로, 사석에서의 나이 등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학습자 지침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윗사람’, ‘아랫사람’, ‘또래’로 간략화했다. 유대, 친분, 친근감 등의 복합적인 개념도, 두 화자 간의 관계의 연륜에서 나오는 친밀도로 간단히 요약했다. 이 두 요인에 덧붙여 대화 상황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도 포함시켰다. 아래의 표2는 이 세 요인에 비추어 호칭·지칭어 사용을 관찰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직장의 신* (KBS 2013)이라는 드라마의 한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사용된 호칭·지칭어를 기술하는데 적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분석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사용된 지칭어를 기록하는 예행 연습 단계로 짧은 장면에서 한 인물에게 여러 인물이 어떤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함께 살펴 본다. 예를 들어 *직장의 신* 제6화에 사무실에서 여러 인물들이 각각 순차적으로 주인공 단기 계약직 미스김을 부르는 장면이 있다. 참고로 이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늘 ‘미스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최고령의 고정도 과장은 “김양”, 손아래 입사동기 계약직 여성 정주리는 “선배님”, 오만한 마케팅 영업부 팀장 장규직은 “김씨”라고 부른다. 학생들에게 미스김에 대한 호칭표현을 듣고 찾아 위의 표를 완성하게 한 후에, 상황과 각 화자와의 서열, 친분이 호칭어를 선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이 세가지 요인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논의해 본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규직은 주인공을 대개 “김씨”라고 부르는

반면 같은 직급의 마케팅 영업지원부 팀장 무정한은 “미스김씨”라고 부르는 것을 대조하여 개인차나 지칭대상에 대한 태도 등의 역할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또는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직급의 계약직 여직원 정주리 친근감이 더 깊다면 어떤 호칭을 사용했을까에 대한 추론도 호칭에 선택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lt;표 2&gt; 호칭어 사용 분석 기록지

인물	호칭	이유(직위)	호칭 사용의 특징(여기금, 아랫사람, 또래)이다	두 사람의 차이(모른다, 존경, 친구)
무팀장님	미스김	공적	아랫사람	잘안다
팀장님	미스김	사적	아랫사람	잘안다
정한아	장규직 팀장	사적	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
야	장규직 팀장	사적	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
정한씨				
무팀장				

여러 인물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는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함께 보고 분석하면 좀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사용된 지칭어를 모두 받아 적은 후 각각의 호칭이 인물들 사이의 위계, 친소 관계,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구성해 나가는지 이야기해 본다. 예를 들어 직장의 신 제4화에 출근 시간 등장 인물 거의 모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함께 타고 가는 2분이 채 안 되는 장면이 있다. 부하 여직원이 남자 주인공 장규직의 입가에 붙여진 반창고를 보고 “장팀장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신입 사원이 그 상처에 대한 장규직의 설명에 토를 달자 장규직의 동료이자 친구인 무한정은 “장팀장”이 얼굴 모양이 좀 남달라서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고자 한다. 당황함을 수습한 장규직은 “야”, “신입”, “너”라고 신입사원을 부르며 훈계를 한다. 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더 많은 고정도과장이 장규직한테 “김양”한테 얹어 맞기라고 했냐고 하자 장규직은 “과장님”은 왜 그런 이상한 농담을 하시냐고 반문한다.

학생들이 호칭어 분석의 개념틀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소그룹으로 나누어 호칭어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드라마는 교사가 추천해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을 주제 대로 하는 드라마라면 직함형 호칭어는 물론이고 가족형 호칭어까지도 광범하게 예시되어 있을 것이며, 가족 또는 애정 드라마라면 가족형 호칭어가 풍부하게 사용되어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서로 다른 드라마를 택하거나 같은 드라마라면 다른 등장인물들을 맡도록 한다. 각 소그룹은 한 드라마에서 서너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보되, 초기와 후기의 에피소드들이 다 포함되면 인물간의 관계의 변화에 따른 호칭어 변화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호칭어 분석표를 완성한 후 그 드라마에서 인물 간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어떤 호칭어가 사용되었는지 학급에 구두 발표하도록 한다. 학생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호칭어

사용 체계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대표적이거나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을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도록 한다.

호칭어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습자들은 다양한 호칭어에 접하고 각 호칭어의 선택요인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기존의 교재, 교실내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웬만하게 도입할 수 없는 범위의 호칭어를 익힐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직장의 신 에피소드를 몇 편 보고 프로젝트를 마친 학습자는 기업내 부장, 팀장, 과장의 위계에 따른 직함형 호칭,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형 호칭, 직장 안팎으로 형성되는 사적 관계에 따른 가족형 호칭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 4. 맷음말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체계는 문법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를 망라하고 관통하며 문화적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본 발표는 호칭어·지칭어 체계의 교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그 방안으로 실물자료 (authentic material)를 사용한 의사소통과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의 발견학습 (discovery learning)적 방법을 제안했다. 이 교수 방안은 청사진의 수준으로 수업 현장 실행에는 자료의 선택과 준비, 구체적 학습활동 설계가 필요하고 학생의 관심도와 학습 성과의 관찰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합적 호칭어·지칭어 교수방안이 조율되고 보강되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소산·전은주. (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세국어교육*, 95호, 363-389.
- 박정운. (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한국 사회와 호칭어*, 75-93. 역락.
- 배지영. (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호칭어 사용 양상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숙 (2009). 학부유학생의 호칭어 사용 연구: 언니, 누나, 형, 오빠, 선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0권, 109-125.
- 이윤진. (2006).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권 1호, 287-306.
- 이의섭. (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제효봉. (2010).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271-310.
- Brown, Roger & Gilman, Albert.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pp. 253-277). MIT Press.
- Eun, Jong Oh & Lee, Mina. (2012). Appropriate uses of referents and verbs in narratives in Koran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in the 17<sup>th</sup> AATK annual conference, Stanford University.

- Kim, Hae-Young. (2012). Development of NP forms and discourse reference in L2 Korean. In Ho-min Sohn et al. (eds.), *Innovations in Teaching Korean: 2012 Special issue of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211-235.
- Lee, Kiri & Cho, Young-mee Yu. (2013). Beyond 'power and solidarity': Indexing intimacy in Korean and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5(1), 73-100.
- Oh, S.-Y. (2010). Invoking categories through co-present person reference: The case of Korea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42(5), 1219-1242.

---

○ 김해영(Hae-Young Kim)

Dept.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Duke University  
Box 90414, 2204 Erwin Rd., Durham, NC 27708, U.S.A.  
01-919-660-4364  
haeyoung@duke.edu